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미 정

2021년 8월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김 미 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김미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성봉   
위 원 최보영   
위 원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국문초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김 미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0세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패널 전문업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0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Richins와 Dawson(1992)가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 (MVS; Material Value Scale), Kasser와 Ryan(1992)가 개발한 기본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BNT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WB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의 간소화된 버전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을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T검정, 매개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대별, 결혼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질주의 가치관의 일부 하위요인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유능성의 일부영역과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혼과 미혼의 경우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달라짐이 밝혀졌다. 기혼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높으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것이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와 연결되지만, 미혼일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결혼여부에 따라 상담개입과 전략을 달리 하여 접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Macro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3. 연구모형 .....	7
4. 용어의 정의 .....	8
<b>II. 이론적 배경</b> .....	9
1. 물질주의 가치관 .....	9
2. 기본심리욕구 .....	11
3. 심리적 안녕감 .....	13
4. 연구변인 간 관계 .....	16
가.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	16
나.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17
다.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19
라.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20
마.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변인 .....	23
<b>III. 연구방법</b> .....	28
1. 연구대상 .....	28
2. 측정도구 .....	29
가.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 .....	29
나. 기본심리욕구 척도 .....	30
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	31
라. 세대구분 .....	32
3. 자료 처리 및 분석 .....	33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b>34</b>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34
가.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량	34
나.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36
다. 세대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37
라. 결혼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38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39
3.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41
4.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의한 조절효과	44
5.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과 세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48
<b>V. 논의 및 제언</b>	<b>52</b>
1. 결과 요약 및 논의	52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59
<b>참고문헌</b>	<b>62</b>
<b>Abstract</b>	<b>71</b>
<b>부록 I</b>	<b>73</b>
<b>부록 II</b>	<b>74</b>

## 표 목 차

표Ⅱ-1	물질주의관련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이론적 모델 .....	22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9
표Ⅲ-2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0
표Ⅲ-3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1
표Ⅲ-4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2
표Ⅳ-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35
표Ⅳ-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36
표Ⅳ-3	세대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37
표Ⅳ-4	결혼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38
표Ⅳ-5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	40
표Ⅳ-6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 .....	42
표Ⅳ-7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	43
표Ⅳ-8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	46
표Ⅳ-9	결혼여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	47
표Ⅳ-10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	49
표Ⅳ-11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	50



## 그림 목 차

그림 I -1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모형 .....	7
그림 IV-1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형 .....	41
그림 IV-2 조절효과 모형 .....	45
그림 IV-3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	45
그림 IV-4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	47
그림 IV-5 조절된 매개효과 .....	48
그림 IV-6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	5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21 세계 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는 한국의 행복도 순위를 전체 95개국 중 50위로 발표했다. 2018부터 2020년까지 합산 순위에선 전체 149개국 중 62위를 기록해 작년 보고서보다 1단계 하락했다(John.F, 2021). 반면, 한국의 인당 GDP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할 정도로(2021.4 기준, World Economic Outlook, IMF) 높은 편이다. 한국인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게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을 연구해온 긍정심리학자 Ed Diener(2010)는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2005년 130개국 13만 7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평균인 5.5점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의 균형'은 130개국 중 116위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또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지 측정하는 문항에서 7.24점으로 5.45점을 얻은 미국과 6.01점을 얻은 일본, 심지어 5.77점을 얻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물질주의가 나쁜 것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느라 사회적인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녕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미국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빈곤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5000달러에 도달하면 돈은 행복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십 년간의 '행복지수'를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잉글하트는 산업화 이후 물질주의적이었던 인간 사회의 가치가 점차 탈물질주의로 변화하

고 있다(Inglehart & Welzel, 2005)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며 최근 미니멀리즘 라이프스타일(Minimalism Lifestyle)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24.5만 회원수(2021.4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온라인 커뮤니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으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유행하고 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니멀라이프의 핵심이념이다. 물건의 소유를 최대한 절제하는 이러한 미니멀라이프의 풍조는 그동안 팽배해 있던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다. 물질주의에 대해 이러한 우려와 폐해 속에 물질주의 관련 연구는 소비자학, 심리학, 가족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심리학 분야의 해외 물질주의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이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컨대,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Richins & Dawson, 1992), 일상적으로 낮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며(Christopher & Schlenker, 2004), 불안감 및 신경증(Watson, 201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불확실한 자기 개념 및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Kasser, 2001) 자기실현 및 활력 수준이 낮다(Kasser & Ryan, 1993, 19 96; 박선웅,2017). Dittmar(2014)는 물질주의와 관련하여 총 151개의 논문을 통해 258개의 서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에서 물질주의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 긍정적자기, 부정적자기, 위험행동 등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갖고 있고, 이 경로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이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Dittmar(2014)는 이러한 정신관련 지표들이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이루는 하위차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Richard(2016)은 높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돈을 행복과 안녕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물질주의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 중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행복 및 안녕은 물질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주의와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물질주

의와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서 경제 수준의 조절효과를 본 박선웅(2017)은 물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였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박선웅(2017)은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중 첫 번째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높은 물질적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 간 괴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근원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긴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인과관계는 후자인 심리적 욕구 비충족의 관점에 더 가까운 결과라 보고 진행하려고 한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온 개인의 안녕감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만족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것이다. 반면, 주관적 안녕감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있으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흔치 않다(Ryan & Deci, 2001; Diener, 1994).

최근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 중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기본심리욕구이다. 기본심리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획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성장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Ryan & Deci, 2002).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독립성, 유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말 그대로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SDT를 기반으로 하여 물질주의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었다. Wang(2017)은 물질주의와 기본심리욕구,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3차례의 종단연구로 규명해 내었는데, 기본심리욕구가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부적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gpaul(2016) 은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차원별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그 중 자율성만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혀냈다.

Dittmar(2014)는 앞서 언급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물질주의가 개인심리욕구를 매개로 개인의 안녕에 이르는 영향이 나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뿐 아니라 사회의 빈부격차도와 발전 속도 등의 변인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Dittmar는 미국, 일본과 태국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예를 들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성향,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했는데, 주로 소비자학 관점에서 물질주의 성향으로 인한 소비자 행동 및 태도의 차이에 관련된 것이었다(이승희, 2012; 송인숙, 2006; 이미정, 2011; 홍은실, 2014). 2010년대에 들어서야 물질주의와 여러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상관연구를 통한 여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홍기원(2015)는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심리적 기제들이 만들어 내는 현상들을 확인하고, 정교한 구조방정식을 통해 보다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물질주의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비로소 물질주의와 심리적 기제 사이에 보다 정교한 검증이 시행되었는데, 박선영(2018)은 여자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숙달목표의 변화양상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밝혀냈다. 최태선(2020)은 중년여성의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과 내부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내며 외부통제성을 낮추어 안녕감의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김유나(2017)는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높은 물질주의로 인해 저하된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Dittmar(2014)는 메타분석을 통해 물질주의와 개인의 안녕감의 관

계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었다.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뿐 아니라 전문성, 소득 등을 탐색해 보았는데 그 중 성별과 나이에 따른 조절효과만이 입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홍기원, 2015; 정의준, 2018; 김유나, 2017).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그 결과가 상반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ittmar(2014)의 연구는 시기와 대상면에서 본 연구에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는 조절변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반면, Burroughs(1997)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삶의 스트레스의 관계가 이혼 및 별거 가정과 온전한 가족의 가족구조(family construct)에 따라 조절됨을 밝혀냈다. 또한, 소비자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소비행동과 경제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생순위, 가족경험, 결혼유무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Helen, 2015; 허은정, 2012).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한금윤, 2015; 장지원, 2006).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미혼과 기혼의 개인은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박정현, 2011). 그러므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결혼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보고 결혼여부가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중년여성, 중학생, 여자 대학생 등 단일한 특정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비교를 한다거나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구통계적 대상으로 한 범용적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해 왔다. 김유나(2017)는 제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관련 연구에서 향후 보다 다양한 표집을 통해 국내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가치와 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일반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표본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물질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경로가 결혼여부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봄으로써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결혼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세대,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 1.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은 성별, 세대,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물질주의 가치관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며 이를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4.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 4.1.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결혼여부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이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I -1의 연구모형을 통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를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이르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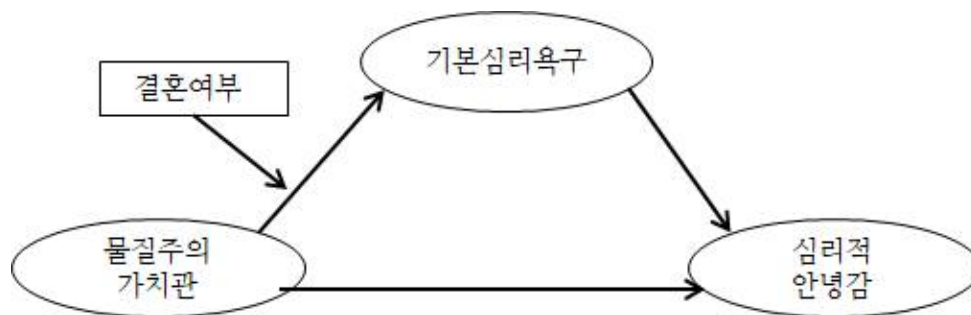


그림 I -1.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모형



## 4. 용어의 정의

### 가. 물질주의 가치관

Richins(1992), Kasswer(2016), Ditter(2014)의 정의를 바탕으로 물질주의를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려는 성향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에 삶의 중요도를 두는 가치관’ 정도로 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보고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척도는 Richins와 Dawson(1992)의 Material ValuesScale(MVS)를 유지혜(2018)가 타당화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 나. 기본심리욕구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적 욕구로 이것이 충족되어야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안녕감과 같은 성장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촉진될 수 있다.(Ryan & Deci, 2002)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독립성, 유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Kasser & Ryan, 1992; BNT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를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 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정의에 의하여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행동과 동반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구분하여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Ryan & Deci, 2001; Diener, 1994). 척도는 Ryff (1989)가 개발한 심리 안녕감 척도(Ryff, 1989;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의 48문항을 Ryff & Keyes(1995)가 간략화하여 제시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간략화한 척도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번안,수정보완, 신뢰도 검증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조운주, 2006; 김수지, 2009; 최명순, 2008; 소선숙, 2012).

## II. 이론적 배경

### 1. 물질주의 가치관

소비자학 연구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물질주의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척도를 개발해 양적으로 검증하게 된 것은 1980년대와 90년대 부터였다(Dittar, 2014; Kasser, 2016). Belk(1985)는 물질주의를 성격적 특성(Personal Traits)으로 보고 ‘삶의 만족을 위한 중요한 원천을 세속적인 물질의 소유로 보는 경향’이라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소유(Possessiveness), 무관용(Non-generosity), 시기심(Envy)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하위척도의 타당성 검증했다. 여기서 ‘소유’는 물건을 빌리거나 버리지 않고 소유하기, ‘무관용’은 다른 사람들과 물건 공유하지 않기,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Richins(1992)는 물질주의를 신념(beliefs) 혹은 가치관(value)으로 보고 ‘돈, 물질의 소유 및 획득에 삶의 중요도를 두고 물질의 소유로 삶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Richins(1992)는 Belk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자들이 물질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소유의 관점으로만 보는 견해에서 탈피해 소유하는 것이 행복에 주는 영향,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얻으려는 의도를 포함한 광의의 가치중립적인 물질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물질주의 가치를 크게 물질의 소유로 성공을 판단하려는 성향(possessi on defined success)인 성공성(Success), 획득 자체에 의미를 부여(aquisition cen trality)하는 중심성(Centrality), 획득을 통한 행복을 추구 (aquisition as the pur suit of happiness) 하는 행복성(Happines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물질주의의 하위차원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Richins, 1992). 첫째, 성공수단적 물질주의에서 물질주의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성공을 소유의 질과 양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공의 가치는 비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자아상과 완벽한 인생을 규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Campbell, 1969; Richins, 1992에서 재인용). 둘째, 획득중심적 물질주의는 물질주의자들이 인생의 중심을 소유와 획득에 두는데 있다. Daun(1983)은 물질주의를 '물질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목표인 것에 맞춰진 라이프 스타일'로 묘사하였다. 물질주의자들은 물건 자체를 숭배하며 소유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구성하고 행동하는데 종교와 같은 존재이다. 셋째,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에서는 소유와 획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소유와 획득 자체가 삶에서의 만족과 안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어느 정도는 모두 행복 추구를 하게 마련이지만 여기에서의 행복의 추구는 개인적 관계나 경험, 성취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가 아닌 획득이나 소유를 통한 행복이다.

Kasser(2016)는 물질주의를 '이미지, 높은 지위, 명성, 돈, 소유가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를 반영하는 목표나 가치관'으로 보았다. 이것 역시 물질주의를 단순히 물질의 소유 자체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향으로 보던 개념에서 벗어나 삶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으로 확장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Kasser(2016)가 제시한 열망척도(Aspiration Index)는 대상자들이 다양한 삶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반물질주의적 목표에 비해 재정적 성공, 타인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미지, 명성과 같은 외부성 목표들의 상대적 집중도를 계산한다. 또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외부성 목표를 낮출 때 심리적 안녕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했다. Dittmer(2014) 역시 물질주의를 '돈의 획득과 소유에 삶의 중요도를 두는 가치관, 목표, 신념의 장기적인 지지에 있어서의 개인적 차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ichins(1992), Kasser(2016), Ditter(2014)의 정의를 바탕으로 물질주의를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려는 성향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에 삶의 중요도를 두는 가치관' 정도로 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해보고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 2. 기본심리욕구

Deci와 Ryan(2000, 2002)은 20 여년간의 동기 분야 연구를 기반으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하 SDT 로 함)을 개발하였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기본심리욕구이론을 포함하여 인지평가이론, 유기적 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 최근에 추가된 목표 내용 이론까지 다섯 가지의 미니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추가 및 통합되고 있다. 자기 결정성은 개인의 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강점과 한계점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부의 힘을 인지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이나 선택이 자율적일수록 내적동기가 유도되어 기본적 심리욕구가 잘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심리욕구 이론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은 많은 경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SD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김아영,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을 이룰 수 있는 기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핵심이론인 기본심리욕구를 주요변인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본심리욕구는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이다.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구성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고 만족시키는 경험을 지속하게 해줌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재된 동기가 발현되게 되어 자기결정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 욕구는 생물의 생존에 영양소가 필수적이듯이 인간이 심리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적 영양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 및 인지구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며 안녕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과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Ryan & Deci, 2002).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의 기본 심리욕구가 개인의 성장과 안녕감을 이루기 위한 필수 충족요소임을 인정하고 세 가지 욕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았다.

첫 번째, 자율성에 대한 욕구(Need for autonomy)는 자신의 행동의 지각된 근

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행동하는 원인이 자신의 흥미와 통합된 가치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명희, 2008).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그로인해 유능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율성 욕구는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yan, 1982). 또한 SDT에서는 자율성을 독립성과 구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성이 의존성과 대립되는 개념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Ryan & Deci, 2002).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자율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김아영, 2010).

두 번째, 유능성에 대한 욕구(Need for competence)는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만족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유능성 욕구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서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과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한다(김아영, 2010). 즉, 유능감은 기술과 능력을 얻는 것보다는 노력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Ryan & Deci, 2002).

세 번째, 관계성에 대한 욕구(Need for relatedness)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느낌을 말한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어내거나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타인과 안정적인 교제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심리적 지각에 관한 것이다(김아영, 2010). SDT 이론에서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내재동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관계성 욕구에 대한 만족은 내재동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지만 유능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욕구에 비해 좀 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Ryan & Deci, 2002).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자유로이 선택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발전해 나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자체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심리욕구가 모든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심리적 안녕감

Ryan과 Deci(2001)은 SDT의 이론에서 안녕감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쾌락추구형 안녕감(Hedonic well-being)으로 삶의 만족과 정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여기는 측면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 한다(Diener,1994). 두 번째는 행복추구형 안녕감(Eudaemonics well-being)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기능에서의 안녕감으로 보는 것이다. SDT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가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을 심리적 안녕감(Ph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한다. 심리적 안녕이란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말하며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거나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ndrews & Rovinson, 1991). Ryff와 Keyes(1995)는 삶의 질을 주관적 안녕감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질을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명소 등(2011)은 단순히 긍정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주관적인 만족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보다 더욱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의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기능적 측면까지 포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신의 잠재력을 실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행동과 동반하는 감정”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6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수용’,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적 대인관계’, 결단력이 있다고 느끼는 ‘자율성’, 자신의 삶과 주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인 환경에 대한 지배력,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신념인 ‘삶의 목적’, 한 인간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인 ‘개인적 성장’이라는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오혜진, 2011).

Ryff(1989)가 제시한 하위요인이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자아수용(Self-acceptance)의 높은 점수는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다양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경우 과거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반면, 자아수용 점수가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실망하게 되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바라게 된다.

두 번째,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 with others)의 높은 점수는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강한 동정심과 애정,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주고받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뜻하고 개방적이 되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인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어서 욕구불만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할 줄을 모르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 자율성(Autonomy)에서의 높은 점수는 자기 결정적이며 독립적이다. 사회적 압력에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저항하며 확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안다. 또한,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반면에, 낮은 점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를 하게 된다. 사회적 압력에도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네 번째,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에서의 높은 점수는 환경을 다루는 능력과 통제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외부 활동의 복잡한 구조들을 통제하고, 주변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욕구와 가치에 적합한 맥락을 선택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는 일상 생활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적 맥락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섯째,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에서의 높은 점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현재와 과거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삶의 목적을 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는 삶의 의미가 부족하며 목표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과거 삶의 목적을 살펴보지 않으며, 삶의 의미를 주는 신념을 가지

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개인 성장(Personal growth)에서의 높은 점수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성장과 확장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험에 개방적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있는 상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지식과 효능감을 더욱 반영해가며 변화해 나갈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에서는 개인적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시간에 따라 발전이나 확장해 나가지 못한다. 삶에 지루해하며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여섯 가지 구성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는 20대에서 70대까지의 성인 남녀 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6요인 모델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젊은 층의 경우 자아수용성과 환경통제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자아수용성과 함께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 삶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개인적 성장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타인과 깊이 있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내적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다은,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판단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심리기능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심리적 안녕감을 주요변수로 선정하였다.



#### 4. 연구변인 간의 관계

##### 가.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운, 권력, 돈, 물질과 같은 외재적 가치 추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으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욕구의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Deci and Ryan(1985)은 외적 보상의 추구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 이지도 않지만 과도한 외적 보상에의 집중이 ‘제어 지향성(Control Oriented)’을 만들어내어 개인의 통합과 자아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제어 지향성이 큰 개인은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심리적 통합이나 자아실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Vansteenkiste et al. (2007)은 자아실현과 같은 내적 노동가치(Intrinsic work value)가 아닌 경제적 보상, 안전 등과 같은 외적 노동가치(Extrinsic work value)가 기본심리욕구와 노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외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심리욕구의 불만족과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Deci, Ryan 과 함께 내적 혹은 외적 목표추구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동료인 Niemiec(2009) 역시 SDT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적 목표추구와 심리적 건강이 상관이 있었으며 기본심리욕구가 이것을 매개하지만 외적 목표 추구는 오히려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나 불안과 같은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다 직접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Kasser(2002)는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의 상대적인 불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인생의 경험을 멀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며 그 결과로써 심리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Deci & Ryan, 2000; Kasser, 2002). 국내에서는 김유나(2017)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에서 Kasser & Ryan(1993)의 연구를 인용하여 물질주의 가치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사회비교

를 많이 하게 되고 남의 의견에 의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불안정하게 되어 유능감이 좌절되기 쉽다.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 하는 개인은 관계나 호의에 가치를 덜 두고 따라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덜 갖게 되어 관계성의 좌절을 겪기 쉽다. 끝으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개인은 돈을 벌거나 물질적 소유를 얻는 외적보상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내적보상에 대한 선택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자율성 욕구의 좌절을 더 겪기 쉽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아지면 개인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중 일부 혹은 전체가 훼손되어 기본심리욕구의 미충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해 보기로 했다.

#### 나.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Dittmar(2014)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198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146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물질주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안녕(Well-being)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것을 물질주의와 관련된 안녕 구조(Well-being construct)의 4개의 커다란 범주로 구분하였다. 4개의 각 범주는 하위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래와 같이 총 12개 였다.

##### ① 주관적 안녕감

: ‘삶의 만족도’, 개인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 종합적인 주관적 안녕감

##### ② 자기 평가

: 긍정의 자기평가 (자존감, 긍정적 자기상, 자아실현) / 부정의 자기평가 (자기의심, 자기보호, 자기모순)

##### ③ DSM-1 진단기준

: 불안, 우울, 충동적 소비, 기타 다른 DSM 기준들

##### ④ 건강과 신체위험

: 신체적 건강, 위험행동

메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이러한 안녕감의 12가지 하위변인들 모두와 부적인

상관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안녕감의 어떤 특정한 변인보다는 개인적 불일치(Dittmar, 2008), 불안전감(Kasser, 2002), 기본심리욕구의 미충족 (Deci & Ryan, 2000; Kasser, 2002)과 같은 일반적인 심리적 변인들과 실제적으로 더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경제적 성공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낮은 자기실현, 낮은 활력감과 높은 우울감과 불안을 보였으며, 자기 수용, 소속감, 공동체 지향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높은 안녕감과 낮은 정신적 괴로움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er & Ryan, 1993; 1996).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객관적 및 주관적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높은 우울감, 낮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낮은 삶의 의미를 보였다고 밝힌 박선웅(2017)의 연구에서 또한 밝혀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외부와 내부 통제성을 제안하였다. Kasser(2016)는 물질주의를 높이는 요인은 광고, 드라마, 소셜 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정보에 장시간 노출이라고 하였다. 외부 정보의 자극은 자신의 내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하며, 외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 즉,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외부통제성을 낮추어야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태선(2020)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냈다. 이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통제성을 확인하고,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에 따른 낮은 안녕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통제성을 낮추는 것을 제시하였다. 외부통제성과 관련된 운, 성공, 권위, 인기, 돈, 외모, 자기에, 광고, 드라마 등에 따른 외재적 가치를 낮추고 내부 통제성과 관련된 이타심, 감사, 자존감 회복, 좋은 인간관계 등의 내재적 가치 추구를 높이는 것을 상담적 함의로 도출해 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은 안녕감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urroughs & Rindfleisch(2002)는 지금까지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의 연구가 주로 주관적 안녕감만을 다룬 것이었으나 물질주의 가치관 자체가 가치관에 관련한 것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아닌 감정적인 측면과 심리기능적 측면까지를 포괄한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 다.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개인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친밀한 관계형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내적동기를 성취하는 경험으로 이끈다. 그러나 욕구가 좌절될 때,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안녕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La Guardia, Ryan, & Deci, 2000). 국내 연구에서는 오혜진(20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와 심리 안녕감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본심리욕구가 심리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안도희(2008)는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학업소진과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교사가 자율성을 지지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고 이를 매개로 하여 학업 소진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업 성취도 못 지 않게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며 또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역시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기본심리욕구의 한국형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이명희(2008)는 기본심리욕구 척도가 외적준거인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동시에 투입한 기본심리욕구의 척도는 심리적 안녕감 분산의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능성이 .386, 자율성이 .130, 그리고 관계성이 .087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적 지배 등의 하위변인들의 상당 부분을 기본 심리욕구가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최근에는 기본심리욕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관계성이 적응과 성취,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주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 안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국내의 심리학 분야에서도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SDT 적용 분야에서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아영,2010). 이에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기본심리욕구를 사용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았다.

#### 라.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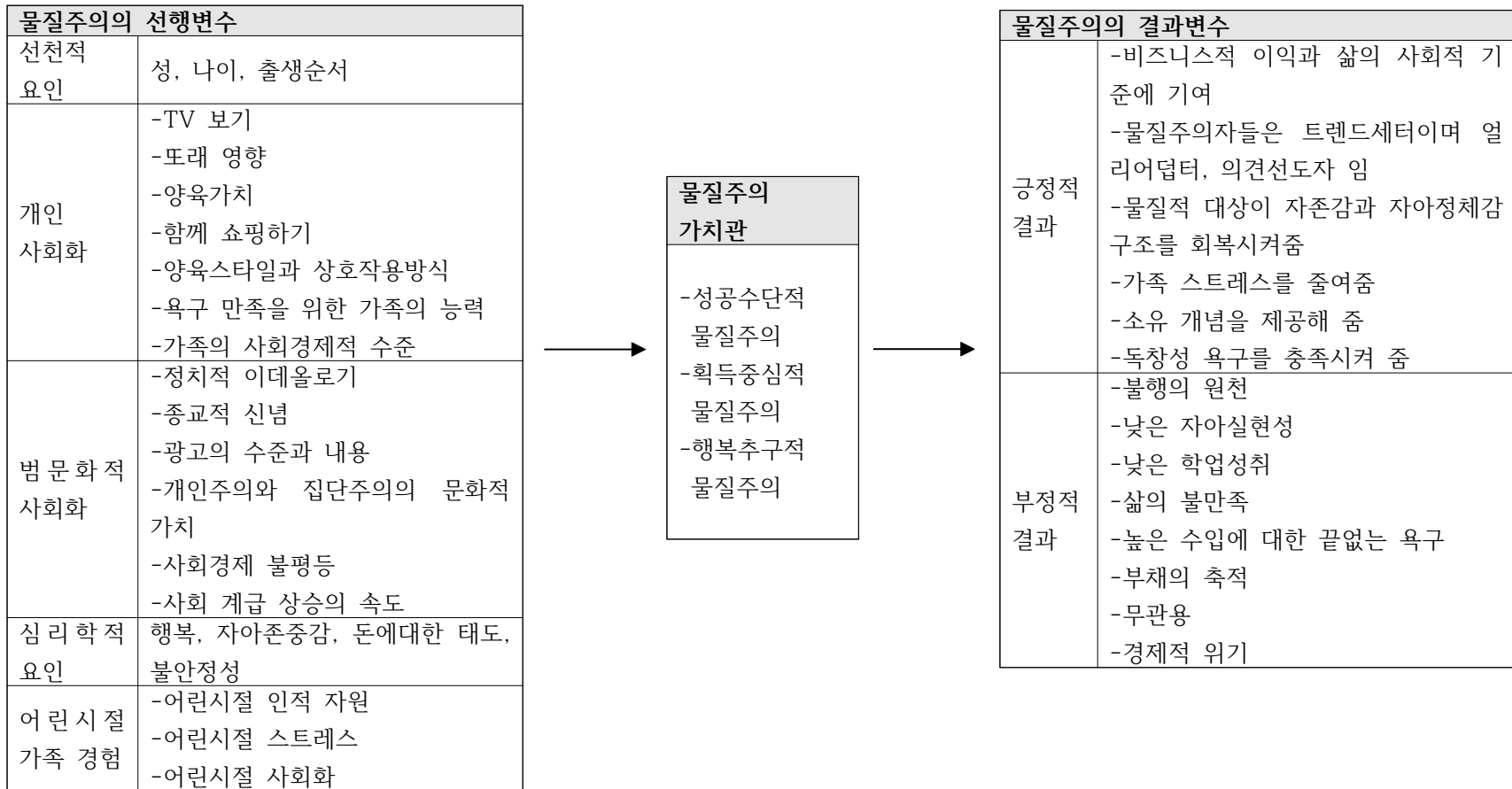
물질주의 가치관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해외의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Dittmar의 메타연구(2014)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각각 통제해보니 물질주의가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준 것을 확인하였다. 즉, 물질주의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Kasser(2014)는 물질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2년, 2년, 6개월 동안의 종단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그는 시간에 따른 물질주의의 증감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 혹은 감소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기본 심리욕구가 이를 매개함을 증명해 냈다. Nagpaul(2016)은 물질주의와 삶의 만족, 자아실현을 포함한 전반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만이 매개효과를 유일하게 설명해 내는 변수임을 밝혀냈다. 이것은 물질주의가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처음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낸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물질주의, 기본심리욕구, 안녕감의 관계를 보는 연구 중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흔치 않은 가운데, Wang(2017)는 중국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Wang(2017)은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종단연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가 물질주의와 안녕감 혹은 우울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나(2017)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를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기본심리욕구 좌절이 물질주의 추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물질주의 추구가 심리적 욕구좌절의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가치”로서 개인의 행동에 일으킬 목적을 제공하고(motivational goals) 이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좌절을 일으킬 만한 적극적인 행동과 경험을 하게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학계에서는 물질주의가 심리적 변인들의 선행변수가 아닌 결과변수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왔다. 박선웅(2017) 역시 비슷한 논지에서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정신건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추구가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Helen(2015) 역시 물질주의가 심리적 변인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물질주의가 다양한 심리적 변인의 선행변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Helen(2015)은 물질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학문적 통찰을 주는 수많은 연구논문, 학위논문, 기타 학문적 에세이 등을 종합하여 표II-1 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일부 해외의 논문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하는 모형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SDT 이론을 기반으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결과변수로는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포함하는 척도인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II-1 물질주의 관련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이론적 모델 (Helen, 2015)



## 마.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변인들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설경옥, 2016; Teng et al., 2016; 정의준, 2019), 세대(이보영, 2019; 정의준, 2019), 전문성, 경제수준, 국가의 경제발전 속도, 빈부격차(Dittmar, 2014), 가족구조(Burroughs, 1997)와 같은 가족관련 변인 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Dittmar(2014)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전반적 안녕구조 사이에 개인적 요인 중 성별, 나이의 조절효과만이 나타났고, 개인의 경제수준, 전문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국내연구에서도 개인관련 요인 중 개인의 경제수준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우울,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함을 밝혀내었다(박선웅, 2017). Dittmar(2014)의 연구에서는 기타 국가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도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 ① 성별, 세대

연구자들은 물질주의 가치관 자체가 성별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여러 번 밝혀낸 바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주로 여성과 저연령층 혹은 청년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의준(2018)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주관적 계층감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특히 주관적 계층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낮은 그룹은 높은 쪽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층과 낮은 연령층, 그리고 여성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인철(2019)의 행복리



포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물질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홍기원(2015)는 물질주의에 관련된 몇 가지 심리적 변인들을 탐색해보았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남성성이 높고 수직적 집단주의가 더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경향성이 더 높았으며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활력감이 더 떨어지고, 더 높은 우울증을 보였다. 반면, 김유나(2017)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집단 분석을 통해 성차를 검증한 결과 물질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이렇듯 물질주의 수준 자체는 성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 사이의 관계에는 성별, 세대별 차이가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Dittmar(2014)는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더 낮은 삶의 만족과 전반적 안녕감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한, 환경-일치 가설(environment congruence hypothesis)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남성이 물질주의적 가치에 보다 집중할 때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기 때문에 물질주의 가치 추구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관계에서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김유나(2017)의 연구에서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이러한 남성 가장 모형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직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주의 가치 추구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Dittmar(2014)의 메타연구에 포함된 논문들의 조사 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Dittmar(2014)가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조사시기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였으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급격한 성역할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그 결과를 본 연구에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의 고정적인 성역할의 해체에 대해 가부장제 사회였던 그 동안 남성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남성에게는 강인함과 씩씩함을, 여성에게는 순종과 부드러움을 강요하며, 남성에게서 아니마를, 여성에게서 아니무스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며 남녀의 역할은 평등해 졌고, 남성다움과 여성스러움을 구별하는 일이 무의미해 졌다(고재원,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절변수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대와 관련해서도 Dittmar(2014)의 연구

에서는 연령을 18세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 연령의 고저를 구분하였으므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상호비교 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나은영(2010)은 1998년과 2010년에 한국인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세대별 차이를 비교해보았는데, 1998년에 비해 2010년 확실히 세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세대별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 보고 성별과 세대를 조절변인으로 선택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성별과 세대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 자체의 차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 본 연구에서도 성별과 세대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 ② 결혼여부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과 관련한 변인 중에서는 가족구조,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 등과 관련된 연구가 소비자학, 가족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Burroughs(1997)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삶의 스트레스의 관계가 가족구조에 따라 조절됨을 밝혀냈다. 온전한 가족(Intact family)일 경우에는 물질주의와 스트레스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지만 반면에 이혼 혹은 별거에 의해 해체된 가족 (Disrupted family) 일 경우에는 물질주의와 스트레스가 부적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온전한 가족의 경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도 높았지만, 해체된 가족의 경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는 오히려 낮아짐을 의미한다. Burroughs(1997)은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로부터의 분리 등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재정적 혹은 공간적 불안정성과 불영속성을 얻게 된 개인이 삶에서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원천으로 물건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예

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의 경우 인터뷰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물질주의와 결혼의 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연구에서 Jason(2011)은 물질주의가 결혼의 질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두 명의 배우자중 한명이라도 물질주의 가치가 높은 경우, 둘 다 낮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경우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더 낮았다. 앞서 물질주의와 관련한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Helen(2015)의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와 관련 있는 출생순위, 어린 시절의 가족경험 같은 가족관련 변인이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에서 가족구조나 결혼여부 등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가족구조 그 중에서도 결혼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했다.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윤리보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소비가 주는 자족적인 쾌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결혼과 출산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한금윤, 2015). 즉,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개인의 가치관이 이성 교체, 결혼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다(김상윤, 2012). 30대 미혼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결혼관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장지원(2006)은 직업과 개인생활에서 물질주의 성향을 가장 높게 보인 ‘안정 건설형’은 자신이 결혼상대자로 부적당하다는 항목에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음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독신이라는 생활양식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학 분야의 소비자 사회화와 가족의 역할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부모나 가족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관, 기술 등을 얻게 된다고 했다(Helen, 2015).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을 분석한 연구에서 물질주의가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으며,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이 더욱 크다고 했다(허은정, 2012).

또한,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에 의한 싱글 가정에서 자란 성인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성인들에 비해 물질주의의 성향이 높으며 이것이 충동소비를 더 부추긴다고 밝혀졌다(Aric,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의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결혼여부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같은 30~40대라고 할 지라도 미혼의 1인가구와 기혼의 30~40대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들어, 비(非) 1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SNS 등을 통해 느슨하게라도 주변인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성향이 컸다.(박정현, 2011) 그러므로, 특히 한국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도 결혼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보고 결혼여부를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사용하여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개인 성장, 삶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심리기능적 측면을 측정하였다. 일부 SDT 기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 혹은 심리적 부적응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기본심리욕구의 완전 매개효과를 입증해 냈다(김유나, 2017). 즉, 물질주의 가치관 수준으로 인한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완전 매개변수로 작용할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과 매우 유사하며 이로 인해 이들 욕구의 충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8; 오혜진,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로 가는 간접경로가 결혼여부에 따라 조절되어 결국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7 일까지 온라인 전문 리서치 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리서치 기관은 전국에 1,316,720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로도 꾸준히 새로운 패널을 모집하고 있다(2020.2월 기준). 여기에, 온라인 홈페이지 뿐 아니라 패널추천, 전화를 이용한 랜덤 추출, 오프라인 가두 모집 등의 대표성을 띤 일반인들을 꾸준히 유입시키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7 인터넷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5%에 이르며, 10대부터 40대까지의 이용률이 99%, 50대도 98.7%이므로 온라인 서베이가 충분히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이소연, 2018).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데이터 품질은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대등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평가차원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갖는다(이지영, 2006).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의 구분이 있는 할당 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할당 표집 방식으로 조사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수준으로 살펴 보았고 결과는 표Ⅲ-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은 224명(49.8%), 여성은 226명(50.2%)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세대의 경우, 청년(만 20~39세)은 222명(49.3%), 중년(만 40세~59세)은 228명(50.7%)로 성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246명(54.7%), 미혼이 204명(45.3%)로 기혼이 미혼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61명(13.6%), 201~300만원 이하 92명(20.4%), 301~400만원 이하 68명(15.1%), 401~500만원 이하 58명(12.9%), 501~600

만원 이하 63명(14.1%), 601~700만원 이하 32명(7.1%), 701~800만원 이하 27명(6.0%), 800만원 이상 49명(10.9%) 이었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50)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24	49.8
	여	226	50.2
세대	청년(만 20~39세)	222	49.3
	중년(만 40~59세)	228	50.7
결혼여부	기혼	246	54.7
	미혼	204	45.3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1	13.6
	201~300만원 이하	92	20.4
	301~400만원 이하	68	15.1
	401~500만원 이하	58	12.9
	501~600만원 이하	63	14.0
	701~800만원 이하	27	6.0
	800만원 이상	49	10.9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 가.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지혜(2018)가 원척도인 Richins와 Dawson(1992)의 Material Values Scale (MVS)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한 후 구성하여 타당화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한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6문항, 삶에서 물질의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7문항,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5문항으로, 총 18문항 으로 구성된다.

표Ⅲ-2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1, 2, 3*, 4, 5, 6*	6	.738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7*, 8*, 9*, 10, 11, 12, 13*	7	.724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14*, 15, 16*, 17, 18	5	.690
<b>전체</b>		<b>18</b>	<b>.863</b>

\* 역채점 문항

물질주의 가치관은 총 18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아니다-약간아니다-보통이다-약간그렇다-매우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질주의 가치관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863 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나. 기본심리욕구 척도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가 기본심리적 욕구만족 척도 (Kasser & Ryan,1992; BNT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를 번안 타당화한 것을 사용한다. 기본심리욕구 척도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표Ⅲ-3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율성	1*, 2*, 3*, 4, 5, 6*	6	.836
유능성	7, 8, 9, 10, 11, 12	6	.833
관계성	13, 14*, 15, 16, 17, 18	6	.841
<b>전체</b>		<b>18</b>	<b>.905</b>

\* 역채점 문항

기본심리욕구의 총 18개 문항은 전혀아니다-아니다-약간아니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의 Likert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높게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 척도 전체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가 .90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율성의 Cronbach's  $\alpha$ 는 .836, 유능성의 Cronbach's  $\alpha$ 는 .833, 관계성의 Cronbach's  $\alpha$ 는 .841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 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Ryff (1989) 는 48문항을 가진 심리 안녕감 척도(Ryff, 1989; Psychological Well-BeingScale; PWBS)를 개발하였다. 후에 Ryff & Keyes(1995)가 이것을 간략화 하여 각 6개의 하위요인당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18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간략화된 18개의 문항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운주(2006)가 번안하고 김수지(2009)가 수정보완, 최명순(2008), 소선숙(2012), 김태욱(2017) 가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표Ⅲ-4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50)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율성 영역	1*, 2, 3	3	.634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4*, 5*, 6	3	.769
인생의 목표영역	7*, 8*, 9	3	.599
개인적 성장영역	10*, 11, 15	3	.666
자아수용영역	12*, 13, 14	3	.700
환경에 대한 지배감영역	16, 17, 18*	3	.622
<b>전체</b>		<b>18</b>	<b>.832</b>

\* 역채점 문항

심리적 안녕감의 총 18개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비교적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 전체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 가 .83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자율성 영역 .634,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영역 .769, 인생의 목표영역 .599, 개인적 성장영역 .666, 자아수용영역 .70,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 .622 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 라. 세대구분

Belk(1985)의 세대 간 물질주의 차이 연구에서는 세대를 나이어린(미혼이며 부모와 함께 삼), 중간(기혼이며 자녀와 함께 살며 손자는 없음), 나이 많은(조부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lk 의 구분을 참고하고 세대별 물질주의의 차이를 연구한 이보영(2019)의 구분대로 청년(19~39세), 중년(40~60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T검정, 매개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들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표본이 정규분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별, 결혼여부별로 집단을 나누어 변인들 간 평균 비교 하였다.

넷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한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의 model 1 을 이용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조절된 매개효과와 기본가정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조절변수가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의 model 7 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 가.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로부터 받은 450부의 유효한 설문 조사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평균은 2.95, 기본심리욕구의 평균은 4.23,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의 하위요인은 성공성은 3.06, 중심성은 2.77, 행복성은 3.08로 행복성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기본심리욕구는 하위요인별로, 자율성은 4.25, 유능성은 4.12, 관계성은 4.32로 관계성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한 지표로 왜도의 절대값은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7미만일 경우,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가정할 수 있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 모두 해당 범위에 분포하며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450)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물질주의	성공수단적	1.00	5.00	3.06	.69	-.35	.22
	물질주의 획득중심적	1.00	4.71	2.77	.614	-.02	.39
	물질주의 행복추구적	1.00	5.00	3.08	.66	-.24	.90
	물질주의						
	<b>전체</b>	1.00	4.44	2.95	0.55	-0.29	0.81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2.17	6.00	4.25	.82	-.05	-.36
	유능성	1.00	6.00	4.12	.80	-.47	.63
	관계성	1.67	6.00	4.32	.72	-.36	.26
	<b>전체</b>	2.33	6.00	4.23	.63	-.13	-.06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영역	1.67	5.00	3.26	.60	.43	.46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1.67	5.00	3.53	.68	-.08	-.35
	인생의 목표 영역	1.00	5.00	3.36	.68	.12	.11
	개인적 성장 영역	1.00	5.00	3.61	.69	-.24	.18
	자아수용영역	1.00	5.00	3.11	.79	-.39	.05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	1.33	5.00	3.46	.63	-.01	-.02
	<b>전체</b>	2.11	5.00	3.39	.47	.23	.18

## 나. 성별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성별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 $t=2.03, p=.043$ ), 전체 기본심리욕구( $t=-2.41, p=.016$ ),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 영역( $t=-3.13, p=.001$ )과 관계성 영역( $t=-2.49, p=.013$ )에서만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IV-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p<.001$ , \*\* $p<.01$ , \* $p<.05$ )

변인	남성 (N=224)		여성 (N=22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질주의 가치관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3.10	.68	3.02	.69	1.18	.237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2.72	.59	2.82	.69	1.64	.102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3.14	.64	3.02	.67	2.03*	.043
	전체	2.96	.54	2.94	.56	.45	.650
기본심리 욕구	자율성	4.12	.83	4.37	.78	-3.13**	.001
	유능성	4.11	.82	4.12	.77	-1.43	.886
	관계성	4.24	.69	4.41	.74	-2.49**	.013
	전체	4.15	.62	4.30	.64	-2.41*	.016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영역	3.26	.59	3.25	.61	.27	.783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3.48	.64	3.58	.70	-1.48	.138
	인생의 목표 영역	3.35	.69	3.37	.67	-3.39	.734
	개인적 성장 영역	3.55	.67	3.65	.69	-1.54	.124
	자아수용영역	3.16	.77	3.06	.79	1.33	.183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	3.46	.60	3.45	.65	.295	.768
	전체	3.38	.47	3.39	.47	-.315	.753

## 다. 세대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세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t=5.96$ ,  $p=.000$ ) 과 심리적 안녕감( $t=-2.87$ ,  $p=.004$ ) 에서 세대별로 확실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 $t=-1.93$ ,  $p=.054$ )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 요인별로는 물질주의의 모든 차원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에서는 자율성에서만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인생의 목표 영역,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표IV-3 세대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p<.001$ , \*\* $p<.01$ , \* $p<.05$ )

변인	청년 (N=222)		중년 (N=228)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질주의 가치관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3.19	.65	2.92	.69	4.24***	.000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2.94	.58	2.60	.60	6.11***	.000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3.22	.61	2.93	.67	4.63***	.000
	전체	3.19	.50	2.80	.56	5.96***	.000
기본심리 욕구	자율성	4.14	.80	4.35	.82	-2.82**	.005
	유능성	4.06	.85	4.16	.73	-1.35	.176
	관계성	4.31	.73	4.34	.70	-.41	.685
	전체	4.17	.65	4.28	.62	-1.93	.054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영역	3.22	.60	3.29	.59	-1.26	.207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3.45	.67	3.61	.67	-2.46**	.014
	인생의 목표 영역	3.27	.71	3.45	.64	-2.83**	.005
	개인적 성장 영역	3.57	.72	3.64	.65	-1.05	.294
	자아수용영역	3.06	.83	3.16	.74	-1.35	.175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	3.36	.65	3.55	.58	-3.16**	.002
전체	3.32	.48	3.45	.46	-2.87**	.004	

## 라. 결혼여부에 따른 기술통계량 비교

세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t=-3.97$ ,  $p=.000$ ), 기본심리욕구( $t=3.29$ ,  $p=.001$ ), 심리적 안녕감( $t=4.86$ ,  $p=.000$ ) 모두에서 기혼과 미혼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의 개인적 성장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기혼과 미혼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IV-4 결혼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 $p<.001$ , \* $p<.01$ , \* $p<.05$ )

변인	기혼 (N=246)		미혼 (N=204)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질주의 가치관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2.97	.70	3.16	.65	-2.85**	.005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2.68	.62	2.87	.59	-3.26**	.001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2.96	.67	3.21	.62	-4.16***	.000
	전체	2.86	.57	3.06	.51	-3.97***	.000
기본심리 욕구	자율성	4.33	.82	4.14	.79	2.51*	.012
	유능성	4.24	.74	3.95	.84	4.06***	.000
	관계성	4.36	.69	4.27	.74	1.34	.179
	전체	4.32	.62	4.12	.64	3.29**	.001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영역	3.34	.59	3.17	.60	3.02**	.003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	3.60	.69	3.44	.65	2.53*	.012
	인생의 목표 영역	3.50	.63	3.19	.70	4.89***	.000
	개인적 성장 영역	3.66	.66	3.53	.71	1.94	.053
	자아수용영역	3.23	.75	2.96	.80	3.73***	.000
	환경에 대한 지배감 영역	3.56	.61	3.33	.62	4.02***	.000
전체	3.48	.47	3.27	.45	4.86***	.000	

##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과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r=-.223(p<.01)$ 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과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도  $r=-.304(p<.01)$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와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도  $r=.768(p<.0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본심리욕구가 더 잘 충족될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간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r=-.339, p<.01$ )과 유능성 ( $r=-.139,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능성의 일부 하위요인 및 관계성과는 부적상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IV-5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N=450) \*\*\* $p < .001$ , \*\* $p < .01$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3-4	3-5	3-6
1 물질주의 가치관	1														
1-1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880**	1													
1-2 획득중심적 물질주의	.836**	-.562**	1												
1-3 행복추구적 물질주의	.837**	-.681**	.524**	1											
2 기본심리욕구	-.223**	-.163**	-.142**	-.285**	1										
2-1 자율성	-.339**	-.302**	-.224**	-.355**	.790**	1									
2-2 유능성	-.139**	-.086	-.081	-.209**	.837**	.455**	1								
2-3 관계성	-.049	-.007	-.031	-.118**	.817**	.449**	.586**	1							
3 심리적 안녕감	-.304**	-.240**	-.218**	-.335**	.768**	.608**	.651**	.617**	1						
3-1 자율성 영역	-.255**	-.236**	-.209**	-.205**	.484**	.435**	.416**	.323**	.588**	1					
3-2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075	-.040	-.072	-.085	.441**	.357**	.255**	.479**	.575**	.227**	1				
3-3 인생의 목표	-.240**	-.187**	-.175**	-.265**	.497**	.460**	.430**	.313**	.741**	.295**	.264**	1			
3-4 개인적 성장	-.137**	-.103**	-.096**	-.161*	.578**	.435**	.486**	.495**	.764**	.382**	.356**	.542**	1		
3-5 자아수용	-.262**	-.209**	-.141**	-.348**	.573**	.374**	.575**	.453**	.739**	.316**	.241**	.451**	.427**	1	
3-6 환경에 대한 지배감	-.308**	-.239**	-.234**	-.326**	.643**	.504**	.553**	.514**	.772**	.323**	.330**	.535**	.486**	.569**	1

### 3.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하여 표IV-6과 같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이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beta=.223, p<.0001$ )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beta=-.304, p<.0001$ )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 $\beta=-.139, p<.0001$ )과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 $\beta=.737, p<.001$ )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표준화계수( $\beta=-.139$ )는 2단계에서의 표준화계수( $\beta=-.304$ )보다 작아져 부적영향의 크기가 3단계에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심리욕구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서도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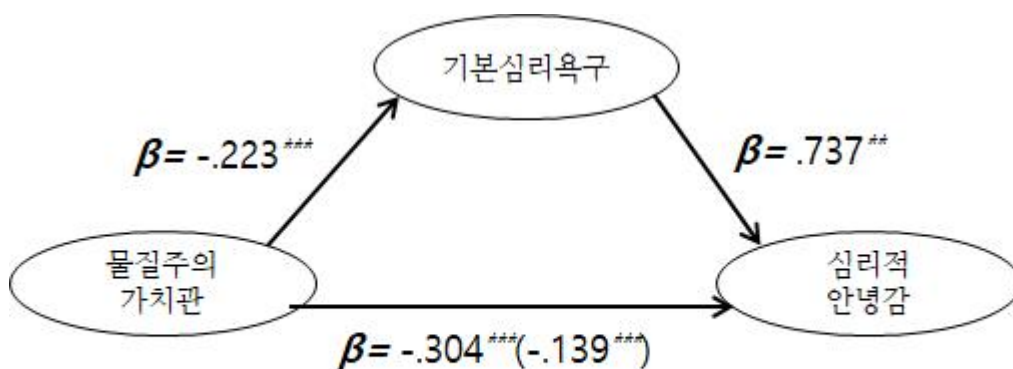


그림 IV-1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모형

표IV-6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N=450)

단계	모형	R <sup>2</sup>	F	B	SE	$\beta$	t
1	물질주의 가치관 → 기본심리욕구	.050	23.362***	-.254	.053	-.223	-4.833***
2	물질주의 가치관 → 심리적 안녕감	.092	45.459***	-.259	.038	-.304	-6.742***
3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 심리적 안녕감	.608	347.079***	-.119 .550	.026 .023	-.139 .737	-4.593*** 24.270**

공차=0.950 / VIF 지수=1.052

\*\*\* $p < .001$ , \*\* $p < .01$ , \* $p < .05$

추가적으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와 VIF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 .950 와 VIF 지수 1.052 로 공차는 0.1 이상이며 VIF 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Sobel 검증은 정규분포성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 대부분의 간접효과는 정규분포성 가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설현수,2019).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규분포성 가정이 필요없는 Hayes(2017)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법을 사용하여 검증해 보았다(표IV-7). 그 결과,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은 -2.035, 상한값(UCLI)은 -.075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적 간접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표IV-7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변수	Effect	95% 신뢰구간		
		Boot S.E.	LLCI	ULCI
기본심리욕구	-.1399	.0330	-.2035	-.0753

주1.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함

주2.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 4.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의한 조절효과

Preacher(2007)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을 차례대로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절차대로 따르기 위해, 앞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Bootstrap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여기서는 조절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주형 변수인 결혼여부는 0과 1의 값을 가진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단, SPSS PROCESS MACRO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이분형 변수인지 연속형 변수인지에 관계없이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상호작용의 탐색과 해석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특히, 조절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경우에 따로 입력할 필요없이 프로그램이 자료를 검색할 때 조절변수의 두 값을 발견하기 때문에 조절효과의 두 가지 코딩 값에 대한 조건부 효과를 자동으로 추정한다(Hayes, 2013).

본격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기에 앞서, 조절된 매개효과와 기본가정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조절변인이 조절하지 못할 때 매개된 조절효과와 구분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다(정선호, 2016).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가 결혼여부에 의해 조절되지 않음을 부록 I 과 같이 확인한 후 조절효과 검증을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경로에서 결혼여부가 조절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 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 은 아래 그림 IV-2과 같이 조절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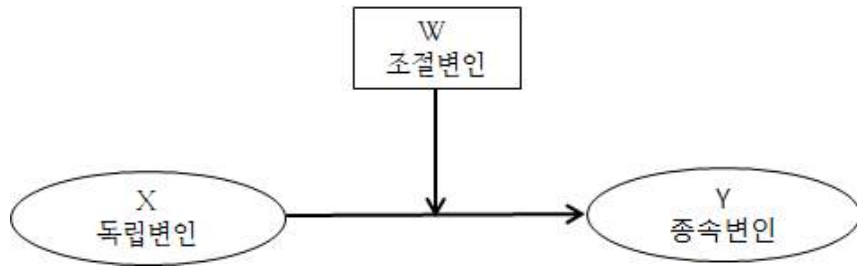


그림 IV-2 조절효과 모형 ( Model 1)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결혼여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odel 1 을 통해 그림 IV-3 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IV-8 와 같다. 여기서 기혼은 '0', 미혼은 '1'의 값으로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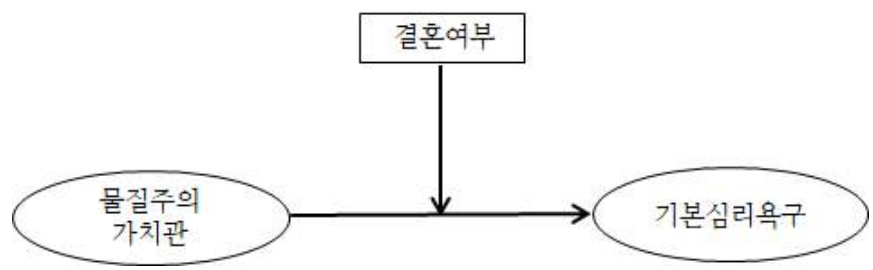


그림 IV-3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B=.223,  $p < .05$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IV-8).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 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IV-8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예측변수	(기본심리욕구)		
	B	SE	t
물질주의 가치관	-.218	.053	-4.090***
결혼여부	-.155	.053	-2.622*
물질주의 가치관 X 결혼여부	.223	.108	2.061*
<b>R<sup>2</sup></b>	.072		
<b>F</b>	11.459***		

\*\*\* $p < .001$ , \*\* $p < .01$ , \* $p < .05$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물질주의의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IV-9 와 같이 기혼일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조절효과는 유의했다. 그러나, 미혼의 경우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크기는 기혼의 경우 미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림 IV-4 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커짐에 따라 기본심리욕구가 저하되는 폭이 미혼에 비해 기혼일 때 더욱 커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의 경우 미혼에 비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아질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영향이 더욱 커짐을 의미하지만, 미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고 더욱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표 IV-9 결혼여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조절변수 (결혼여부)	Effect	Boo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혼	-.319	.068	-4.66***	-.454	-.185
미혼	-.096	.084	-1.15	-.261	.068

\*\*\* $p < .001$ , \*\* $p < .01$ , \* $p < .05$

주1.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함

주2.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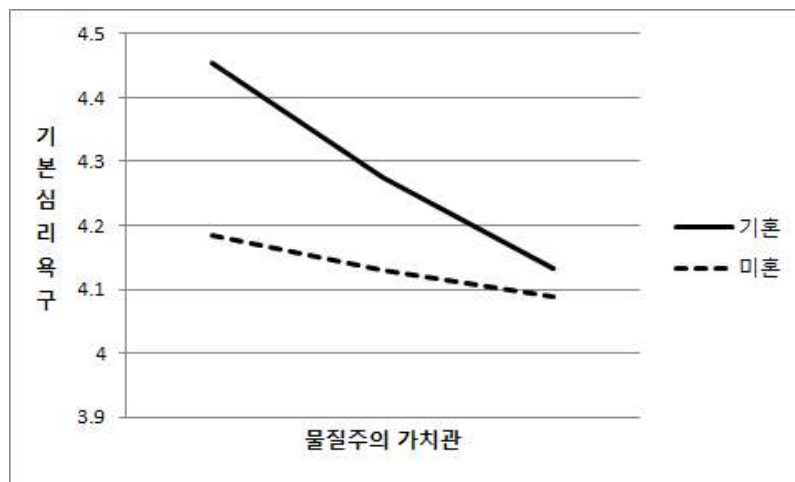


그림 IV-4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결혼여부의 상호작용 효과



## 5.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금까지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와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로 가는 경로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물질주의가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의 Model 7을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참고로, 조절된 매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독립변수의 간접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것을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고 한다(정선호, 2016).

PROCESS MACRO의 Model 7 은 아래 그림 IV-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에 조절변인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매개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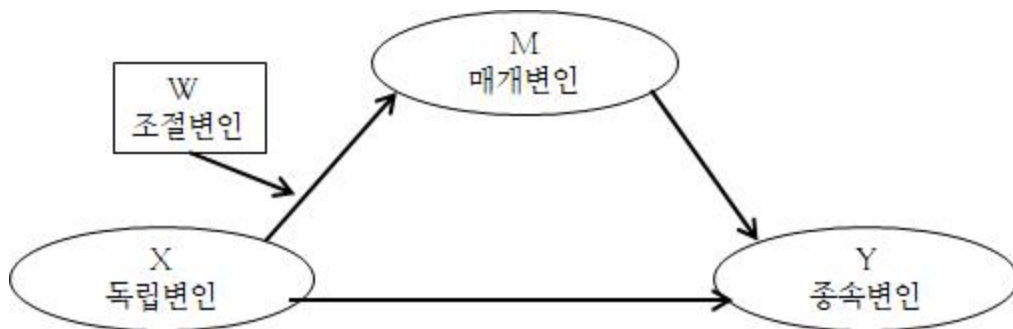


그림 IV-5 조절된 매개효과 (Model 7)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는 결혼여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odel 7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10 와 같다.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이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 $B=-.218$ ,  $p<.001$ )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550$ ,  $p<.001$ ). 그리고 독립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과 조절변인인 결혼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B=.223$ ,  $p<.05$ ) 이에 따라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결혼여부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한다.

표 IV-10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예측변수	모형1 (기본심리욕구)			모형2 (심리적 안녕감)		
	B	SE	t	B	SE	t
물질주의 가치관	-.218	.053	-4.090***	-.119	.026	-4.593***
기본심리욕구				.550	.023	24.270***
결혼여부	-.155	.059	-2.622			
물질주의 가치관 X 결혼여부	.223	.108	2.061*			
<b>R<sup>2</sup></b>	.072			.779		
<b>F</b>	11.459***			347.079***		

\*\*\* $p<.001$ , \*\* $p<.01$ , \* $p<.05$

미혼과 기혼 각각의 기본심리욕구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표 IV-11 를 보면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는 기혼의 경우 -.176, 미혼의 경우 -.053 으로 기혼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선 조절효과의 분석(표

IV-9) 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기혼일 경우 높아진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미충족 시켜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까지 이르게 하는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혼의 경우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므로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혼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1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건부 간접효과 검증

조절변수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기혼	-.176	.041	-.256	-.095
미혼	-.053	.056	-.156	.059

주1.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함

주2.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SPSS PROCESS Macro에서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절과 매개가 통합된 모형의 조절된 매개지수를 제공한다. 표 IV-12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해 보았다.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도는 낮아지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는데(매개효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결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조절효과)의 통합적인 조절된 매개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그림 IV-6에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도식화 하였다.

표 IV-12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지수

조절변수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결혼여부	.051	.026	.007	.105

주1.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함

주2.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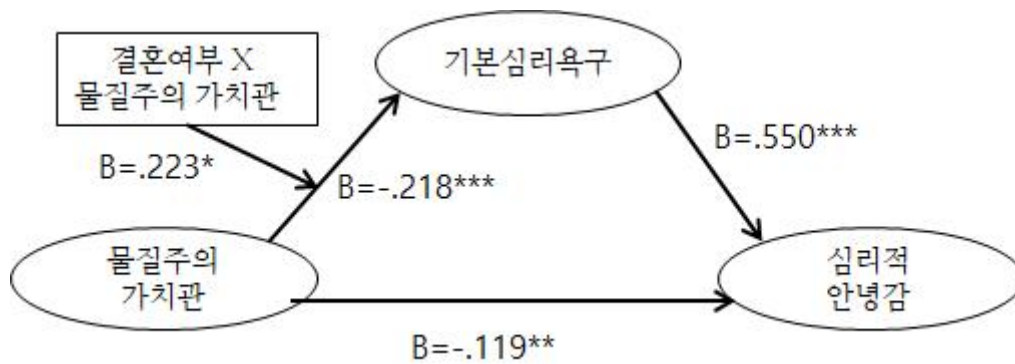


그림 IV-6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 V. 논의 및 제언

###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450명의 다양한 인구통계를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별, 세대, 결혼여부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결혼여부가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또한 검증해 보았다.

#### 가.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성별, 세대별, 결혼여부의 평균차이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성별로 비교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대와 결혼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와 기본심리욕구에서 남성과 여성 집단의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여성의 물질주의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고 밝혀왔다 (Dittmer, 2014; 정의준, 2018; 설경옥,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전체로는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단,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에서 오히려 남성이 약간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과 2018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와 함께 ‘대한민국 안녕지수 프로젝트’에서 조사된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총69,8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물질주의 조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물질주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물질주의의 남녀차이는 10대와 20대에 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30대 이후 부터는 오히려 남성의 물질주의 정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물질주의의 남녀 차이를 논할 때 조사대상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물질주의가 강하다’는 반쪽짜리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최인철, 2019).

세대별로는 변인들의 많은 하위차원에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물질주의의 세가지 차원에서 모두 청년세대가 중년세대 보다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였다. 이런 세대간의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1998년과 2010년에 종단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2030세대와 4050 세대의 물질주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나은영, 차유리, 2010). IMF직후 물질주의로 약간 후퇴하던 전반적인 경향도 젊은 층이 더 빨랐으나, 2010년에는 여전히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은 젊은 층이 더 높지만 젊은 층의 물질주의자 비율 역시 증가하면서 혼합형이 줄어들었고, 기성세대의 경우 물질주의자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혼합형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세대차가 감소하였지만 세대별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중년기 여성의 물질주의 정도를 비교해 본 최태선(202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물질주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행복리포트에서도 물질주의는 20대에 정점을 찍은 뒤 나이와 함께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철, 2019). 심리적 안녕감도 중년의 경우 더 높은 수준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Ryff(1989)는 생애주기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을 청년(평균 19.53세), 중년(평균 49.85세), 그리고 노인(평균 74.96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년의 경우 삶의 목적이 노인집단 보다 높고, 자율성이 청년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이 연령에 따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여부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또한 살펴보았는데 거의 전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물질주의의 수준은 기혼에 비해 미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은 반대로 기혼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

이 검증되었는데 비혼주의 성향을 보이는 그룹에서 더욱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였다(장지원, 2006). 또한 소비자 행동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성향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혼인 경우 더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허은정, 2012).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월에는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대에 이르렀고,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명에 달했다. 또한, 21세기 기술집약적인 디지털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학업이나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30대 중반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그런 성인기로 '준비'를 하는 인구가 늘면서 소위 '캥거루족'이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이봉주, 2021). 호정화(2014)는 2008년과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5~39세 청년층의 결혼 가치관은 혼인 및 거주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밝혔다. 비혼-1인가구원은 기혼-가족가구원에 비해 탈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의 청년들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치관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기혼과 그렇지 못한 미혼의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 나.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차원들 간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유능성의 일부 영역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차원별 매개효과를 살펴본 Nagpaul(2016)의 연구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 충족과 관련한 연구에서 Caprariello & Reis(2013) 물질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 간의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

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적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관계적 활동들이 많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여행, 외식, 어드벤처 스포츠 등은 우리의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Hwang, 1987), 비싼 브랜드의 물질적 상품이 체면(face)을 세워주고 높은 인지도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고 한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체면은 대인관계를 든든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본심리욕구의 유능감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럭셔리 제품이나 차, 방갈로와 같은 물질적 성공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개인의 성취감이나 유능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했다(Guevarra & Howell, 2015). 반면, 더 좋은 물건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성취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Solberg, Diener, & Robinson,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은 기본심리욕구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과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와 결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본심리욕구나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하위차원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변인들 관계의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다.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기본심리욕구와 심리적 안녕감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심리욕구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주관적 안녕감 혹은 전반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Dittmar,2014; Kasser,2014; Nagpaul,2016; Wang,2017). 기본심리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에 관련해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기본심리욕구의 미충족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배양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하



지만, 여러 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안녕감 혹은 기타 심리적 변인사이의 관계가 기본심리욕구에 의해 완전 매개 되는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기본심리욕구의 확실한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Wang, 2017 ;김유나,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일부 원인이 물질주의로 인해 기본심리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Nagpaul(2016)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자율성만이 물질주의와 안녕감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과 유능성의 일부 영역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차원까지 살펴보는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Kasser(2014)와 Wang(2017)은 6개월에서 몇 년간의 종단연구로 물질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Dittmar(2014) 역시 물질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및 안녕감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해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나 그 연구가 극히 드문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시간 텀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라.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결혼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혼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미혼일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기혼과 미혼일 경우 달라지며 기혼의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구조와

관련한 변인들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Helen, 2015; Burroughs, 199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의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구체적으로 해보았다.

#### 마.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매개변인인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다음단계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미혼과 기혼의 결혼여부에 따라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의 충족도를 달라지게 하며 그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만족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해체나 출생순위와 같은 가족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Helen, 2015; Burroughs, 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급속도로 미혼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경우 결혼여부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 큰 차이를 보이는 편이다(박정현, 2011).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결혼여부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그 차이가 더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미혼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혼일 경우에만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미혼일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아져도 기본심리욕구가 미충족 되는 경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의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완전 혹은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된 많은 선행연구(Dittmar, 2014; Kasser, 2014; Nagpaul, 2016; Wang, 2017)들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미혼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노현중, 2014). 내재적 혹은 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내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질주의적 가치를 포함한 외재적 생애목표는 기본심리욕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안녕감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개인적인 성장, 타인과의 관계, 봉사 활동 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늘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반면 외재적 생애 목표의 경우에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충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미혼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는 무관할 수 있다.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Burroughs 와 Rindfleisch(2002)의 물질주의 가치관, 집단지향(collective-oriented)가치관,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집단지향 가치관과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했다. 집단지향 가치관은 가족과 종교와 같은 가치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달리, 집단지향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심리적 긴장(psychological tension)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긴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했다.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개인의 경우 가치관의 충돌도 없고 이에 따른 심리적 긴장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미혼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치관을 연구한 연구에서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한다는 ‘가족우선성’은 가족중심주의 가치관의 핵심 규범 중 하나로 가족 우선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비혼이 기혼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았다(호정화, 2014). 또한, 같은 30~40대라고 할 지라도 미혼의 1인 가구와 기혼의 30~40대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박정현, 2011). 이렇듯 한국의 미혼들이 높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호정화, 2014; 최혜빈, 2019) 이들이 기혼에 비해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긴장을 불러오는 가치관의 내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심리적 변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결혼여부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혼과 미혼의 개인에게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기혼일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이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혼일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 자체가 기혼에 비해 높더라도 그것이 기본심리욕구나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본심리욕구를 통한 경로가 아닌 직접적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심리적 기제에 의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연구설계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현중(2014)은 외재적 생애목표와는 달리 내재적 생애목표만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미혼의 경우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같은 외재적 생애목표보다는 봉사, 사랑 등의 내재적 생애목표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이루어 심리적인 안녕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미혼일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 기본심리욕구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기혼일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아지면 기본심리욕구가 저해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을 조절하거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지금까지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여부에 의해 그 영향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해외연구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안녕감에

이르는 경로를 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살펴본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경험을 지속하게 해줌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내재된 동기를 발현시켜 자기결정성을 제대로 이루면 심리적 안녕에 이를 수 있다는 SDT 이론에 기반을 두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결과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인구통계를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결혼여부를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이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밝혀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상담 혹은 교육 현장에서 대상에 맞는 보다 세심한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실제로, Kasser(2015)는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으로 집단 상담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의 내용은 ‘욕구와 필요의 구분하기’, ‘상업 광고의 역할’, ‘건강한 소비 습관’과 같은 것들 이었으며, 세션동안 강의를 들은 후 강의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의 수준을 낮추었을 때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몇 회기의 교육으로 기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면 대학이나 고등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이 사례에 적용해 보자면 결혼여부를 고려해 집단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혼 집단의 경우 ‘욕구와 필요의 구분’과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 반면에, 미혼 집단의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같은 내재적 가치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물질주의 가치관, 기본심리욕구,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간의 관계를 본 부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본심리욕구의 유능성 일부와 관계성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주로 자율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까지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인과관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로분석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Dittmar(2014)의 메타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안녕감 간의 부적인 관계는 빈부격차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 작아진다고 했다. 해당 연구의 표본은 256개중 과반수인 223개가 북미, 유럽, 호주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와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더욱 깊이 있게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 안녕감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현재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이전과는 변화가 있었다. ‘언택트’ 생활양식이 대두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렇듯 과거와는 다른 상황은 조사 대상들의 가치관과 심리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그것이 연구의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원(2011). 고학력 남성 미혼자들이 결혼을 늦추는 심리·사회적인 요인 질적 탐색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2013). 출산과 가치관 : 성,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 및 영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123-147.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상윤(201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광역시 30~44세 미혼남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지(2009).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진(2014). 중년여성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유나(2015).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37-268.
- 김은주, 김민규(2011). 청소년들의 유능성과 관계성 및 내재동기가 공부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25(2), 345-365
- 김천옥(2018).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욱(2017).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은영, 차유리(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노현중, 손원숙(2014).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2), 355-378

- 류정희,이명자(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학교**, 4(1),55-77
- 박선영(2018).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추구와 숙달목표의 변화양상; 기본심리  
욕구 만족 수준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박선웅(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 박선웅(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1-21
- 박연희(2019). 노인이 지각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기  
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노인댄스스포츠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문  
사회** 21, 10(4)
- 박하얀(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  
적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 189-207.
- 복미정(2015). 기혼 여성소비자의 소비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관련 변수. **한국생활  
과학회지** 24(1), 25-38.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성  
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설현수(2019).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소선숙(201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통합모형 연구. 경기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인숙,제미경(2006). 기혼 여성의 물질주의 성향과 비윤리적 상거래행동. **소비문  
화연구**, 185-206.
- 신희성(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보  
건사회연구**, 37(3), 368-397.
- 안도희,박귀화,정재우(2008). 자율성 지지,기본 심리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15(5),315-338.
- 오혜진(2011). 기본심리욕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



- 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지혜(2016). 한국판 물질주의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은(202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정서적 지지와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22(4),157-174.
- 이보영(2019).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차원에서의 한국인 세대 간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12). 패션복제품 구매자의 브랜드민감성, 물질주의, 허영심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18.2 ,321-330.
- 이형권 편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신영사.
- 이미정, 이수형, 송중호, 홍성현(2011). 물질주의 가치관이 재활용 신념과 태도, 그리고 재활용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19 ,171-187.
- 장지원(2006). 30대 미혼남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숙(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기본심리적 욕구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호,서동기.(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
- 정의준,유승호(2018).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주관적 계층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18(3), 89~99.
- 조윤주(2006).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주연(2015). 직장인의 일의 의미가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월순(2018). 중년 기혼여성의 자기효능감, 가족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철(2019). **Korea Happiness Report 2019 ;ABOUT H** , 21세기북스.
- 최태선(2020). 물질주의와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통제성의 매개효과 : 중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8).
- 최혜빈(2019). 애착,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완벽주의와 결혼 의도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금윤(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30.
- 허은정(2012).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23(4).
- 호정화(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 홍은실(2014). 성인여성소비자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중심성, 물질주의 가치에 따른 소비특성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10(3).
- 홍기원,김연우(201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3(1).

Aric Rindfleisch, James E. Burroughs, Frank Denton (1997). Family Structure, Materialism, and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4), 312 - 325.

Andrews, F.M., & Robinson, J.P. (1991).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In J.P.Robinson, P.R.Shaver, & L.S. Wrightsma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61-114.

Belk,R.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12(3),265-280.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370.

Burroughs, James E. and Aric Rindfleisch (1997). Materialism as a Coping Mechanism: An Inquiry into Family Disruption in Advances .*Consumer Research*, Vol. 24, 89 - 97.

- Campbell, Donald T. (1969). "Various Social Attitude Scales," in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ed. John P. Robinson and Phillip R. Shaver, Ann Arbor, MI: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648-653.
- Caprariello, P. A. & Reis, H. T. (2013). To do, to have, or to share: Valuing of experiences over material possessions depends on the involvement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199 - 215.
- Christopher, A. N., & Schlenker, B. R. (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260-272.
- Csikszentmihalyi, Mihaly and Eugene Rochberg-Halton (1978). *Reflections on Materialism*, University of Chicago Magazine, 70 (3), 6-15.
- Daun, Ake (1983). *The Materialistic Life-style: Some Socio psychological Aspects*. Consumer Behavior and Environmental Quality, ed. Liisa Uusitalo, New York: St. Martin's, 6-16.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eci & Ryan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 (5), 879-924.
- D. R. (2010). Birth cohort increases in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mericans, 1938 - 207: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MMPI.

-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45-154.
- Guevarra, D. A., & Howell, R. T. (2015). To have in order to do: Exploring the effects of consuming experiential products on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1), 28 - 41.
- Helen I.(201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aterialism: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s and Behavioral Studies*, 7(1), 20-35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wang, K. (1987). Face and favor: The Chinese power ga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944 - 974.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SON S. CARROLL(2011). Materialism and Marriage: Couple Profiles of Congruent and Incongruent Spouses.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10:287 - 308.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 410 - 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137 - 146.
- Kasser, T., Rosenblum, K.L., Sameroff, A.J. et al.(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 Emot* 38, 1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 - 384.
- Nagpaul, T. & Joyce S. Pang (2016). Materialism lowers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the need for autonomy -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1), 11-21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291-30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 personal sphere :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461.
- Ryan, R. M., & Deci, E. L. (200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3 - 33).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4). Avoiding death or engaging life as accounts of meaning and culture: A comment on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 Arndt, and Schimel, *Psychological Bulletin* 130, 473-477.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719-27
- Richars, L. (2016). *For whom money matters less: social connectedness as resilience resource in the UK*.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2), 509-535.
- Richins, M.L. (1987). *Media, Materialism and Human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352-356
- Richins, M.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ichins, M.L., & Dawson, S. (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Consumer Research*, 17, 169-175.
-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olberg, E.C., Diener, E. & Robinson, M.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29 - 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eng, F., Poon, K., Zhang, H., Chen, Z., Yang, Y., & Wang, X. (2016). Situational cuing of materialism triggers self-objectification among women (but not m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20-228.
- Twenge, J. M., Gentile, B., DeWal, C. N., Ma, D., Lacefield, K., & Schurtz, R Wang, H Liu, J Jiang, Y Song (2017). Will materialism lead to happiness?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312-317.

Vansteenkiste, M., Neyrinck, B., Niemiec, C. P., Soenens, B., Witte, H., & Broeck, A. (2007). On the relations among work value orientation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job outcomes: A self 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0 (2), 251-277.

Watson, D. C. (2014). Materialism: Profiles of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6,197-200.

박정현(2011). *LG business insight2011 413* , LGERI 리포트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140-02\\_20110408085453.pdf](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eco/LGBI1140-02_20110408085453.pdf)에서 2021.4.2.일 검색.

파이낸셜 뉴스 (2021.4.25.) [fn광장] *청년 양극화, 공정한 기회 제공이 해법*, 파이낸셜 뉴스,[온라인] 2021; <https://www.fnnews.com/news/202104251826025324> 에서 2021.5.5.일 검색

World Value Survey (2014) *Post-materialist index*.  
<http://www.worldvaluesurvey.org> 에서 2021.5.10.일 검색

<Abstract>

The Materialistic Value's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 Based on generation and  
marital status

Kim Mi J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depending on marital st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aged 20 to 60 through panel companies, and a total of 450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Measurement tools were used by Richins and Dawson (1992) on the Material Value Scale (MVS), Kasser and Ryan (1992) on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BNTS) and Ryff (1989)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for T test and to analyze mediated effects of each variable, and Hayes (2013)'s PROCESS Macro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materialistic value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d not vary significantly by gender, but differed by generation and marriage status.

Second, a correlation analysis of materialistic value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other. However, it has not been shown to correlate some sub-factors of materialistic values with some areas of psychological need.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tic valu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have a partial effect.

Fourth, the effect of materialistic valu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has significantly shown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depending on marital status.

Through thi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desires has changed in the case of married and unmarried people in the impact of materialistic valu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case of marriage, a high level of materialistic values does not satisfy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s linked to a decline in psychological well-being, but if single,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themselves do not change depending on whether materialistic values are high or low.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 decline in psychological well-being in relation to materialistic values,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depending on marital status.

Key words : Materialism, Basic Psychological Need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rated mediating effect, SPSS PROCESS Macro

부록 1. 물질주의 가치관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여부의 조절효과 검증

예측변수	(심리적 안녕감)		
	B	SE	t
물질주의 가치관	-.224	.038	-5.814***
결혼여부	-.169	.043	-3.949***
물질주의 가치관 X 결혼여부	.135	.078	1.725
<b>R<sup>2</sup></b>	.127		
<b>F</b>	21.650***		

\*\*\* $p < .001$ , \*\* $p < .01$ , \* $p < .05$

## 부록 2.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개인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심리적인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약 1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각 문항을 잘 읽고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문항은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에 따라 부담 없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에서 조사된 사항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자 : 김 미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박 정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 ※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 [kmjkmj0512@naver.com](mailto:kmjkmj0512@naver.com)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통계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번호에 V표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가의 집,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부럽다.	1	2	3	4	5
2.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중 하나이다.	1	2	3	4	5
3. 사람들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는 아니다.	1	2	3	4	5
4.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1	2	3	4	5
5.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다.	1	2	3	4	5
6. 나는 타인의 물질적 소유물에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5
7. 나는 대개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산다.	1	2	3	4	5
8.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소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9.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10.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1.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1	2	3	4	5
12. 나는 럭셔리한(호화로운) 삶이 좋다.	1	2	3	4	5
13.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 비해 물질적 소유물을 덜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14.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1	2	3	4	5
15.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16.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17.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 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 질 것이다.	1	2	3	4	5
18.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1	2	3	4	5

2. 다음은 **기본적인 욕구**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결정하셔서 V표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6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1	2	3	4	5	6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1	2	3	4	5	6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5.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1	2	3	4	5	6
7.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6
8.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4	5	6
9.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6
1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1.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3. 나는 내 주변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
14.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6
15.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6
1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1	2	3	4	5	6
17. 내 주변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1	2	3	4	5	6
18.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3. 다음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경험해 오지 못했다.	1	2	3	4	5
5.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사람들은 내가 배려심이 많아 남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가끔 내가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나는 오늘 하루만 중요할 뿐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9.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없이 방황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1	2	3	4	5
10. 나는 예전에 이미 내 인생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었다.	1	2	3	4	5
11. 나는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내가 살면서 이루어온 것이 실망스럽다.	1	2	3	4	5
13. 내 인생을 돌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원하던 대로 되어 기쁘다.	1	2	3	4	5
14.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5. 나에게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 하는 과정이다.	1	2	3	4	5
16.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주변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비교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일상생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18. 일상생활 (집, 직장, 학교 등) 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기운빠지게 한다.	1	2	3	4	5

4. 다음 항목들은 전체 조사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만 20~39 세 (2) 만 40~59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1) 기혼 (2) 미혼

4.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 200만원 이하 (2) 201~300만원 이하 (3) 301만원~400만원 이하

(4) 401만원~500만원 이하 (5) 501만원~600만원 이하

(6) 601만원~700만원 이하 (7) 701만원~800만원 이하

(8) 800만원 이상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